

師道 研磨의 전당, 釜山教育大學

鄭 原 圭

(釜山教育大學長)

1. 設立背景 및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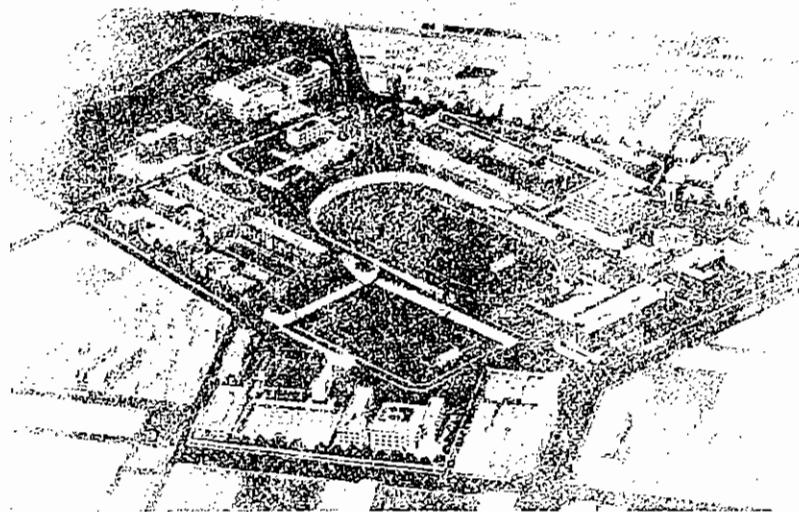
우리 학교가 瓢瓢의 소리를 울려 퍼뜨리며 創建되었던 그날이 엊그제와도 같이 생생하건만 어느덧 40 여 星霜이 흘렀다. 돌아켜 보면 1945년 민족 해방의 감격과 함께 이 나라 초등 교원의 양성 기관으로서 釜山師範學校가 탄생된 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교육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교육이었으며, 특히 국민 기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 고장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초등 교사 양성 전문 기관으로서 사범학교의 출범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軍政 學務當局은 朝鮮教育審議會 등 자문 기관의 전의를 바탕으로 공백기의 교사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사범학교의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1946년에 釜山·仁川·開城·江陵·忠州에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1947년에는 群山·順天·木浦·安東에도 사범학교를 신설하기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 학무 당국의 사범학교 신설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져 경상남도(당시 부산시는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었음) 학무국은 부산사범학교의 설립을 추

진하여 1946년 7월 道立 釜山師範學校의 설립을 인가하고, 학교 전문은 부산시 서구 토성동 소재 舊 부산공립 고등여학교(현재 토성중학교)의 가교사로 결정하였으며, 초대 교장으로 경상남도 학무국장 尹仁駒 선생이 겸임 발령되었다.

한편, 1955년 5월 3일에 개교한 국립 釜山師範大學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신설된 중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년제 사범대학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국립 사범대학이 서울·大邱·公州 등에 설립되어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교사 양성을 해왔으나, 6·25 동란으로 대학은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정상화를 잃었고, 학교가 휴교되어 중등 교원 양성에 차질을 가져 왔다. 그러나 문교 당국의 교사 수급 계획과 교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중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地域社會의 여건에서 釜山과 光州에 2년제 국립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2년제 사범대학의 설립 목적은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 설립 배경을 보면, 첫째로 2년제 사범대학이라는 短期 整成課程으로 교사를 양성하여 부족한 교사를 충원 하자는 것이고, 둘째로 4년제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않거나, 교사 부족이尤甚한 학과를 설



◆ 釜山教育大學은 人間愛와 教育愛로 투철한 교육 철학을 지닌 教師를 양성하고자 한다(사진은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캠퍼스 조감도).

치하여 특수한 영역의 교사를 양성하자는 것, 즉 藝·體能系, 自然科學系, 實業系 등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며, 샛째로 4년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부산 및 경남, 전남 및 전북)에 사범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사회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부산사범대학에 설치된 학과는 수학·과학·가정·음악·미술·체육 등 6개 학과였고, 校舍는 부산시 서구 아미동의 舊總泉寺를 대용하여 1955년 5월 3일 역사적인 개학을하게 되었다. 그후 1957년 10월 등래구 거제동 281번지에 광활한 4만여 평의 敷地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4년제인 부산교육대학이 위치한 곳이 바로 그 당시의 校地인 것이다.

사범학교를 교육대학으로 轉換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였다. 당시 부족한 초등 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규 사범학교 졸업자 이외에 단기 교원 양성 과정과 각종 교원 자격 시험 제도를 채택하여 무계획적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한 결과, 1955년경에 이르러서는 초등 교원 자격 취득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사범학교 졸업자의 배치상 커다란 문제가 되어 미발령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의 축소와 아울러

교사 양성 교육의 質的 向上 문제가 중요한 문교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61년 2월 27일 國立學校 設置令(국두원령 제 211호 부칙 2) 개정으로 국민학교 교사 양성 기관인 부산사범학교와 중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부산사범대학을 폐합하여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新制 釜山師範大學으로 개편하였다. 당시 구제 사범학교로부터 2년을 연장하여 초급대학 과정으로 개편하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려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사회·문화의 발전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초 교육인 의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서는 부족하였고, 둘째로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미만의 젊은 교사에게 국민 기간 교육을 담당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샛째로 구 사범학교 제도하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해지는 학과와 학교 생활이 너무 과중하여 여가 선용, 취미 활동, 개인적 학생 활동이 봉쇄된 결과 편협한 인간성을 가진 교사로養成될 우려가 있었으며, 넷째로 교육 현장에 직결되는 실현·실습, 현장 체험 등의 기회가 적어 관념적인 학습으로 傷向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5·16 직후 ‘教育에 관한臨時特例法’(1961. 9. 1, 법률 제708호)이 공포됨에 따라 신제 부산사범대학은 1962년 3월 1일자로 釜山大併設 教育大學으로 改稱되다가 국립학교 설치령 중 개정(1963. 1. 1, 각령 제1133호)에 의거하여 부산 대에서 분리·독립되어 부산교육대학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出帆한 2년제 교육대학은 草創期(1961~'69)에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로 혁신하여 그 기반을 다지며, 成長期(1970~'77)를 맞아 校舍의 의과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교육의 내적 충실을 도모하였으며, 發展期(1978~'80)에 와서 더욱 초등 교원 양성의 本山으로 발전을 거듭하다가 1981년 3월 1일부터 教育法 중 개정 법률(법률 제 3370 호)에 따라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되어 장축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師道研磨의 殿堂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2. 教育理念과 内容

우리 대학은 創學(1946년) 당시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師範學校로 出帆하였으나, 5·16 이후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轉換措置에 따라 1961년 중학교 교원 양성 기관인 2년제 師範大學과 기존의 사범학교를 통합하여 초급대학 수준인 教育大學으로 개편하고, 1981년부터는 4년제 교육대학으로 轉換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대학은 단일한 課程의 역사가 아닌 시대에 따른 여러 과정의 변천 끝에 오늘의 釜山 教育大學이 성립된 것이며, 반면 學校級이나 課程이 각기 상이하다 하더라도 初等敎員養成機關으로서의 근간을 이어 온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부산사범학교와 부산사범대학이 폐합되면서 발전적으로 통합·성립된 것이 부산교육대학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학교는 그 수준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므로 이를 간의 맥락은 前 2者가 後者의 전신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는 것이다.

본래 대학교육의 理念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精緻한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개발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교육법 제118조의 “敎育大學은 國民學校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 교원 양성이라는 또 하나의 소중한 特殊 目的 을 가지고 있다. 그리므로 본 대학의 교육 목적은 대학으로서의 목적과 교육대학으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참으로 중요한 教育理念과 內容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문과 인격의 도야’ 그리고 ‘師道의 研磨’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 제119조에는 ‘敎員養成의目標’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검·노작의 정신과 험동·책임의 패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가른다.

②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 방도를 체득하게 한다.

③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교육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자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국민의 師表가 되어야 함은 물론 고매한 학문과 폭넓은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다. 요즈음의 혼란 말로 “교사는 많아도 스승은 없다”라는 비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 말은 좋은 스승을 渴求하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대학은 사범교육의 본 정신에 입각하여 師道研磨는 물론 취득 학점상으로 보아도 일반 대학에서는 총 이수 학점을 140 학점을으로 하는 데 비하여 150 학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대학보다 10 학점이 더 많은데 거기에 본 대학은 教育實習이 7주, 이밖에 졸업 논문이 부과된다. 또한 教育內容도 다양하여 師表로서의 품성을 도야하는 教職科目을 위시하여 각 교과 교육, 예·체능 교육, 컴퓨터 교육, 현장 교육 기술의 습득 등 技能과 修練을 요구하는 강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많

은 학점과 다양한 교육 내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특수 단일 목적적 대학으로서 비교적 다양한 학과編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은 초등 교원을 양성한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교사로서의 고매한 인격과 특수한 資質을 갖추게 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教育技術은 물론 인간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원 양성 기관이라는 점에서 人間愛와 教育愛로 투철한 교육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램이 있다. 그러므로 본 대학의 교육도 교사로서의 完成 教育을 실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施設 및 教育環境

본 대학은 1957년 10월 釜山市 東萊區 巨堤洞 281번지에 2년제 사범대학이 신축될 당시 광활한 '한세별'에 약 40,000평의 敷地를 확보하였다. 2년제 교육대학 시대에는 전체 校地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4년제로 승격되면서 教育施設과 設備를 확충하여 입학 정원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입학 정원이 360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剩餘施設로서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校地 및 校舍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大學設置基準에 규정된 시설 기준 면적과 본 대학의 보유 면적 현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校地 및 校舍面積(1990.3.1 현재)

구 분	기 준	보 유	비 율
학생정원	1,440명	2,500명이상	
교지면적	59,883m ²	125,623m ²	209%
교사면적	20,852m ²	35,238m ²	169%

※ 학생 정원(保有) 2,500명 이상은 현재 保有施設로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를 표시한다.

본 대학의 校舍 建物은 본관 및 과학관, 교수 연구관, 실험 실습관, 도서관, 음악관, 미술관, 체육관, 강당, 학생회관 및 소극장, 생활관, 기숙사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생 및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만큼 여전

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또한 附設機關으로는 도서관, 학생생활연구소, 초등교육연구소, 대학 신문사, 전자계산소, 과학교육연구소, 시청각교육관, 대학 방송국, 어학 실험실, 수업 행동 실험실(교육실험용) 등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현대적 시설·설비를 完備하여 教育支援機能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를 연구소 및 실험실은 각각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간 研究誌를 발간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福祉施設은 교수회관, 학생회관, 교내 매점, 학생 후생관(식당), 정구장, 우체국, 보건 및 양호실, 생활(예절)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校內 生活에서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밖에 教生實習을 위한 부속 國民학교와 교육 실험 협력 학교(공립 일반 國民학교)는 물론이고, 남학생으로서 재학중 2년간의 군사 교육을 이수케 하여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관하는 R.N.T.C.(學軍團) 制度가 있다.

이와 같이 본교는 施設·容量面에서 校地·校舍 등의 외곽 시설은 기준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설만으로도 향후 2,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캠퍼스는 靜的空間(연구 면학 공간)과 動的空間(활동 이동 공간) 및 混合空間(휴식 공간)이 조화롭게 구분되어 教學과 研究에 적합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전혀 公害가 없는 매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이루고 있다.

본 대학은 教職觀의 확립, 召命意識의 고취, 師表로서의 품성 陶冶를 비롯하여 각 학과教育의 철저, 藝·體能 교육의 강화, 현장 교육 기술의 체득 등 교육자로서의 資質과 技能을 研磨하는, 즉 초등 교원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 대학으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대학은 國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初等教育科의 범주하에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업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 등 11개 深化課程이 있다. 이 심화 과정은 일반대학이나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과는 달리 공통적으로 초등 교원으로서의 品性과 技能

을 도야함과 동시에 국민학교 각 교과에 해당하는 教科敎育을 더욱 深化 研究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대학의 특색은 각 教科敎育의 충실, 藝·體能 교육의 철저, 현장 교육 기술의 체득 등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編制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소위 本科라고 할 수 있는 주간제와 2년제 교육대학 혹은 초급대학 과정을 수료한 현직 국민학교 교원들이 3학년에 편입하여 2년 내지 3년 간의 과정을 이수하는 夜間制 및 季節制가 있다. 그밖에 여름과 겨울에는 韓國放送通信大學의 출석 수업을 위한 협력 학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4. 發展計劃

본 대학은 1989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후원으로 ‘부산교육대학 발전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때 논의되었던 발전 방안과 수 년 전부터 본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던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初等教育專攻 大學院의 設置

현대 사회의 학문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교 교육의 고도 전문화는 초등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활동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초등교육 專門要員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본 대학에서는 초등교육 전공 대학원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대학원 설치의 기본 요건으로서는 우선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교육 시설과 설비가 확충·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45년의 역사를 지닌 본 대학은 초등교육에 관한 실제적 本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오면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대학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왔다.

대학원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각 학과 및 전공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2인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문교부 내규로는 각 학과 및 전공 과정에 博士 학

위 소지자가 2인 이상 확보되어야 學科 開設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대학에는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32명,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위 취득 예정자가 10명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指導的 教授 要員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대학은 4년제로 승격되면서 교육 시설과 설비를 확충해 왔는데, 이는 입학 정원 600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입학 정원이 360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 剩餘 施設만으로도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즉 현재 校地 면적은 125,623m²(기준 면적의 209%)이고, 校舍 면적은 35,238m²(기준 면적의 169%)를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설치를 위해 특별히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2) 教授 海外研修 및 外國大學과의 學術交流

교수들의 해외 연수 또는 시찰 및 여행은 선진 제국의 교육 발전 동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연수 기회를 갖게 함은 물론이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과 교수 자신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 대학은 19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본교 근속 연한이 오래된 교수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매년 10명씩을 하계 또는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연수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본 대학은 외국의 저명한 대학과 자매 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학술 교류를 위한 교환 교수제의 체택, 공동 연구 과제 해결을 위한 용역제의 도입, 학술 교류를 위한 상호 제휴 관계의 유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3·24일 日本 島根大學과 본 대학 간의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외에 日本 福岡教育大學, 美國의 오하이오주 소재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와의 자매 협정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최신 첨단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과 교사 교육에 관

한 학술 정보, 새로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 및 정보 등 다양한 學術交流가 촉진되고 대학 간의 국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教育大學制度의 擴充 改編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제도는 學校級別로 나누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의 체계적 종합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대학은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사교육의 혁신적인 모델 개발과 학교 교육에 관한 질 높은 연구 결과를 보급해 가는 통합 교원 양성 기관의 성격을 갖춘 교원 양성 제도를 구상·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원 양성 기관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 대학은 다음 양면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기존의 국립 사범대학을 종합대에서 분리시켜 교

육대학과 통합, 지역별 教員大學校로 개편시키는 일이다. 현재의 韓國敎員大學校(청주 소재)가 발족되기 전에 교원 대학교(각 지역별)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당시 문교부장관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制約條件 때문에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대학이 幼兒教育, 初等教育, 初期 中等教育까지를 포함하는 교원 양성 체제로 확대·개편되어야 하는 일이다.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중학교 교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현행 교원 양성의 三元體制에 대해 새로운 검토와 평가가 요청된다. 유아 교사는 전문대학, 초등 교사는 교육대학, 중등 교사는 사범대학이 도맡아 하는 식의 틀에 박힌 교원 양성 체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설계하고 있다. *